

韓·中 團領의 比較

東義大學校 衣類學科
助教授 文 光 姬

본 연구는 西아시아에서 발생되어 韓國·中國을 비롯한 아시아 一帶에 영향을 끼친 團領에 관한 연구로서, 韓國團領과 中國團領을 각각 獨自的인 위치에서 파악한 후 相互 比較·分析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團領이란, 둥근 깃을 가지고 옆 목덜미에서 여미며, 허리에는 帶로 묶고 길이는 엉덩이線 이하로 내려오는 내리달이의 걸옷을 의미하며, 이것은 韓國과 中國을 포함한 주변국에서 4C 초에서 20C 초에 이르기까지 君臣의 官服으로 착용된 것이다.

비교방법은 양국 團領의 내용에 依據하여 要目別로 6개의 比較項目群을 설정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비교항목과 연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둥근 옷깃의 표현어

‘團領’이란 원래 둥근 옷깃을 표현한 것에서 발생된 용어이다. 史書에서 둥근 옷깃을 표현한 용어들은 上領·圓領·盤領·上襟·團領·曲領 등이 있었다. 이들 중 上領·圓領·盤領은 團領과 동일 종류의 의미이었고, 上襟은 襜褕(中衣)의 둥근 옷깃 표현어였고, 曲領은 祭服과 朝服의 착용시 中衣 위에 두르는 일종의 領巾으로서 團領과는 다른 것이었으나 ‘宋史’에서의 기록만은 團領을 의미한 것이었다. 韓國의 경우, 曲領은 濊貊(古朝鮮의 先住民族으로 봄)에서 착용되었고, 圓領·盤領·團領은 朝鮮에 와서 기록되고 있었는데 團領은 文武官의 常服名이었고, 盤領은 깃의 파임이 적은 團領의 표현어였으며, 圓領은 무늬가 없고 胸背를 제거한 團領의 표현어였다. 그러나 中國의 경우, 曲領은 漢에서 宋의 中期까지 착용되었고, 上領·圓領·盤領은 宋에서, 團領은 明에서 각각 기록되고 있었는

데, 宋에서 기록된 명칭들은 團領의 前稱語로 생각되었다. 그림의 분석상 각 명칭이 의미하는 바는 韓·中이 동일하였으며, 宋을 즈음한 高麗에서도 이들 명칭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으나, 高麗 以前의 記錄消滅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2. 流入時期

中國에서는 拓跋珪(386~409)가 세운 元魏 때 유입되었고, 韓國에서는 551년 新羅에서 歌舞人의 ‘紫大袖公欄’을 團領流入의 첫 기록으로 본다. 그러나 拓跋珪는 代(315~376)의 宗家子孫으로서, 代가 亡한지 10년만에 代를 부흥시키면서 자신을 道武帝라 칭하고, 國號를 ‘魏’로 改稱하였다. 따라서 中國에 있어서 團領의 流入時期는 代의 건국시기인 315년까지로 소급될 가능성은 있다.

3. 着用期間

文獻上的 기록에 依한다면, 中國에서는 元魏로부터 明亡까지인 386~1662으로, 韓國에서는 新羅에서의 ‘紫大袖公欄’으로부터 朝鮮亡까지인 551~1910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中國은 315년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韓國 또한 520년(法興王 7년)의 百官公服制度和 아울러 벽화·도용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시대적 한계선을 소급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着用階層 및 用途

韓·中 모두가 君臣의 官服으로 채용하였는데 착용의 初期보다는 後期에 갈수록 階層과 用途가 넓어져 갔다. 中國에서는 唐 이후 明에 이르기까지 女子에게도 여러 계층에서 다양하게 착용되었으므로 韓國보다는 한층 보편화되었다고 생각된다.

5. 옷의 構造面

1) 色相

① 皇帝와 王

韓國에서는 最初의 기록이 高麗인데 黄色系統의 袍를 착용했고, 朝鮮에서는 朝鮮末期의 高宗 때만이 黄色을 착용하였을 뿐 나머지의 경우 모두 紅色의 袍를 착용했다. 中國에서는 北齊에서 緋色·黄色 이다가 隋로부터 明까지는 黄色系統의 袍로 一貫되고 있었다. 이로써 보면 高麗時代에는 韓·中이 동일하였고 朝鮮에서는 다르다. 그것은 이때부터 皇帝의 신분이 王보다 한단계 높게 인정된 것으로, 朝鮮의 王은 中國의 皇太子服色과 같았고, 明에서 皇帝와 皇太子的 服色이 黃·紅으로 구분되는 반면, 朝鮮에서는 紅袍에 붙인 補에 그려진 龍의 발톱수로서 구별하였으니, 王·王世子·王世孫의 경우 龍의 발톱수를 5·4·3으로 줄여 나갔다.

② 百官

韓國의 경우 新羅는 紫衣, 渤海는 紫袍와 緋袍를 唐으로부터 賜與받았는데 신라의 경우 경주 용강동 도용을 보면 團領이 官服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渤海에서는 紫·緋·綠으로, 高麗에서는 紫·丹·緋·綠으로 公服을 구분하였으며, 朝鮮에서는 初期에 紅·靑·綠으로 구분하다가 中期 이후 公·常·時服이 혼합되면서 紫·藍·灰·黑色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北齊에서 黄色을 비롯하여 緋·綠色을 사용했는데, 隋로부터 唐의 中期까지는 上位職은 紫·朱, 下位職은 綠·靑·黃을 주로 사용했고, 唐의 中期에 이르러 黄色사용을 금지시켰고(668), 下位職의 색상을 深淺으로 세분화시켰다(656~684). 唐의 中期부터는 紫·緋·綠·靑의 順으로 階層區分이 되다가 宋의 末期 이후에는 주로 紫·緋·綠을 사용하여 明까지 계속되었다. 이상에서 보면 百官의 服色은 계급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였는데 색상구분의 큰 흐름은 韓·中이 비슷하였다.

2) 무늬

韓國에서는 新羅 때 繡紋袍, 高麗 때 大團花繡紫文羅袍·毳錦袍 등 몇가지, 그리고 朝鮮에서는 文織團領으로 기록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北齊에서 文羅袍, 唐에서 繡袍와 紋樣있는 衣服의 종류가 매우 많았으며, 宋의 後半期부터 金·元에 이르러서는 紫·緋의 옷색에 紋樣의 有無

나 크기로써 직위를 세분화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이로써 보면 紋樣은 장식과 아울러 신분을 구별하는데도 사용되었고 그것의 발달은 中國이 韓國보다 時代的으로나 質的으로 앞선 것 같다. 한편 朝鮮이나 明에 와서는 兩國 모두 무늬 있는 織物이나 繡를 갖추기 보다는 衣服의 등과 배에 붙인 胸背의 紋樣으로써 文武官의 職位身分을 구별하였는데 兩國의 紋樣을 비교해 보면 朝鮮이 明보다 2등급 낮게 정해져 있었다. 이것은 色相에서와 마찬가지로 職分制定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明에서 특이한 것은 英祖 이후 나타나는 一種의 禮服으로 袍에 12개의 團龍紋과 12章紋을 갖춘 것인데, 이것은 胡服이 漢의 제도와 융합된 것으로 團領에 있어서는 最高級의 옷으로 생각된다.

3) 形態

形態面에 考察한 바는 衣의 아래에 裳의 의미로 붙인 襪(襪袍)과 소매의 幅 그리고 옷의 길이를 包含한 全般的인 치수 등이다.

① 襪

新羅에서 551年 歌舞人이 公襪으로 착용하였는데 옷에 襪을 加한 사람은 中國北周의 宇文護(?~572)였으며, 襪袍는 후일 公服으로 발전되어 高麗와 宋에서 많이 착용되었고, 朝鮮과 明에 이르러서는 없어졌다. 따라서 團領에 있어서 襪의 사용은 流入 初期로부터 시대별로 韓·中에 큰 차이가 없었다.

② 소매의 幅

韓國에서는 高麗에서 廣袖·窄袖가 共存했고 朝鮮에서는 中期 이후 文武官의 官服에 소매의 폭이 너무 넓어 그것을 금지하는 勅令이 많았다. 中國에서는 唐初期에는 소매폭이 좁았고, 中期에 점차 넓어졌으며, 末期에는 더 넓어졌는데, 宋에 이르러서는 그보다 더 넓어지므로써 소매의 아래 길이가 치마 길이와 고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明에서도 여전히 소매폭을 3尺으로 제한하기도 했다(1393). 그러나 唐 初期의 좁은 소매폭이 그대로 明까지 계속되는 것도 있었으니 公服과 常服의 구분이 되기도 했다. 韓·中을 比較해보면 각 시대마다 거의 비슷했으며 대체로 소매폭이 넓은 것을 숭상했다고 생각한다.

③ 옷 길이를 포함한 각부의 치수

文武職官의 團領에 대해 朝鮮과 明에서 각각 寸法을 정하였다. 比較結果 옷의 길이에 있어서는

朝鮮은 文·武를 구별하지 않고 袍의 앞길이를 뒷길이보다 짧게하였고, 明은 武官의 옷길이를 文官보다 짧게하였다. 소매길이에 있어서도 朝鮮은 文·武官을 동일하게 하였으나 明은 武官을 훨씬 짧게하였다. 소매폭에 있어서 袖樁은 朝鮮과 明이 동일하였으나, 袖口의 경우 明에서의 武官이 월등히 좁았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바는 明에서는 實用的인 面을 중요시한 반면 朝鮮에서는 禮와 品位를 중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6. 制度

制度面은 크게 나누어 賜與制度和 禁止制度이다.

1) 賜與制度

韓國에서는 新羅 650년경부터 朝鮮末期에 이르기까지 中國으로부터 틈틈이 團領의 賜與가 있었으며 高麗 이후로는 國內에서의 賜與制度도 활발하였다. 中國에서는 唐 初期부터 國內外間에 賜與制度가 활발하여 明 末期까지 계속되었다. 賜與品으로는 唐·宋에서는 紫袍·緋袍·繡袍·綾袍·欄袍 등이, 明에서는 衰龍袍(蟒袍) 등이 있었다.

2) 禁止制度

韓國에서는 高麗 때 臣下와 百姓에게 黃色使用을 금지시켰고 朝鮮에서는 거기에 奢侈根絶에 대한

勅令도 많았다. 中國에서는 唐 初期에 奢侈根絶과 黃色使用의 금지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明 末期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禁止制度에 있어서는 韓·中이 비슷하였다고 생각되나, 高麗 以前의 記錄消滅에서 韓國이 弱하게 나타난 것 같다.

以上에서 韓·中·團領의 同質的 要素로서는 團領 表現語의 의미와 사용 黃色使用과 奢侈의 금지 등을 들 수 있고, 異質的인 要素로서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色相·무늬·賜與制度面에서는 中國의 團領이 韓國의 團領보다 上位에 존재한다.

둘째, 形態面에서 中國은 實用性을 중요시하였고, 韓國은 禮節과 品位를 보다 중요시하였다.

셋째, 소매폭의 넓어짐, 欄을 부착한 점, 12章紋을 繡놓은 점 등은 團領을 漢服化시킨 要因들로서 流入初期에는 없었던 것들이다. 따라서 후일 中國에서는 團領을 그들의 服制로 인식하게 되어 着用範圍가 한층 일반화되었고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여기에 비해 韓國에서는 團領을 中國의 옷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때로는 中國으로부터 請하여 賜與받기도 했으며, 주로 官僚들의 官服으로 착용하였을 뿐, 民庶層이나 女子의 경우 團領을 거의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